



한국근대사연구회보 창간

한국근대사연구회會報(발행인 김인길) 창간호가 나왔다(B5 34면 비매품·사진)

실천적 역사학의 연구역량 결집에 디딤돌이 될 것을 자임하는 이 회보에는 두차례 연 연구발표회의 요지 및 전국역사학대회 참가기, 「한국민중사」재판 방청기 등이 실려 있다.

독립운동사연구소 심포지엄

독립기념관 개관기념 학술심포지엄=8월5일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愼鏞廈)주최.

•주제=① 독립운동의 역사관(金俊樺)/② 만주지역의 민족독립운동(朴永錫)/③ 1910년대의 무장독립운동(尹炳奭)/④ 1930, 40년대 국내독립운동의 성격-讀書會운동을 중심으로-(陳德奎)/⑤ 韓末의병운동 起點의 새 제안(愼鏞廈)(자료 B5 122면)

陳德奎교수(梨大)는 1930년대에 서 40년대 초기에 걸쳐 활발히 일어났던 학생 독서회운동을 항일운동의 중요한 한 줄기로 평가했다. 이 운동은 항일학생운동의 주류로서 실천적으로는 동맹휴교의 실질적인 조직기반이었으며, 이념적으로는 민족투쟁의 신념체계를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고등보통학교(高普)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군국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에 기초한 독서회운동이

당시 사회에 미쳤던 영향을 陳교수는 세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대중의 민족적 저항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념과 실천의 연계성을 추구해 왔다.

둘째, 민족운동선상에서 遊休者 모습을 보였던 과거의 名望인사들 대신 새로운 민족지도계층의 재편을 요구했다.

셋째, 청년학생들에게 교육의 의미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책임 수행에 있음을 자각케 했다.

이 운동을 思想서적의 탐독과 학습이라는 표면현상만으로 보아선 실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일 반적 흐름이 급진적 지향을 띠고 있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

愼鏞廈교수(서울대)는 종래의 의병운동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세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첫째, 종래 대한제국 성립이후, 구한말 의병 再 蜂起의 기점을 1905년 5월 元容八의 의병봉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보다 1년 앞서 1904년 7,8월에 전국 여러 곳에 봉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둘째, 이와 관련, 한말 의병운동의 단계 설정을 종래의 '3단계설'에서 '4 단계설'로 수정하는 제안, 셋째, 종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 간의 대립만을 강조하던 견해를 극복하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였음을 몇 가지 사례로써 밝혔다.

「국어교육월보」 창간

한국국어교육학회(회장 陳泰夏)는 8월1일자로 「국어교육월보」라는 월간신문 창간호를 펴냈다. 타블로이드배판 크기로 8면인 이 신문은 매월1일 발행, 전국의 국어교사들에게 무료 배부될 예정. 창간호에는 「한글맞춤법·표준어 개정안」의 해설, 「국어교육진흥정책 대토론회」 내용 등이 실려 있다.

「고려대장경」 세미나 계획

고려대장경연구회(회주 法田)는 10월 11일 「책의 날」에 기념세미나 및 대장경의 원류를 찾는 순례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은 대장경이 완성된 날로, 出協강당에서 허홍식(경북대)·박상국(문화재 전문위원)·서수생(경북대)·천해봉(성균관대)·무관(해인승가대)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며칠 순례는 선원사-전등사-지천사지-광나루-팔공산 부인사-고령 개진-진주-해인사의 코스를 추적하게 된다.

한길 대토론회

제 2 회 한길대토론회=8월7~9일 해인사.

주제: 분단시대의 한국사회과학과 민족운동

주제발표=이종오(사회학)/김광식(정치학)/황한식(경제학)/임영태(역사학)(자료 B5 35면)

「劇評회보」 창간



한국연극평론가협회(회장 呂石基)가 「劇評회보」 창간호를 펴냈다. (B5 8면 비매품·사진)

呂石基교수(고려대 영문학과)는 창간사에서 '창작은 물론 비평까지도 비평하는 자세'를 다짐하였는데, 앞으로 연4회 발행할 예정. 창간호에는 동협회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11월 동베를린에서 개최될 국제극평협회총회 자료 등이 수록돼 있다.

서양사학 워크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워크숍=7월31일~8월1일 利川유네스코청년원.

주제: 서양사학의 수용과 발전에 관한 연구

① 한국의 서양사학사(김영한) ② 서양사교육의 과거와 현재(임지현) ③ 서양사학의 일반성과 특수성(조승래) ④ 서양사학의 새 방향(차하순)(자료 B5 9면)



金學銖 교수

과학언론매체 육성방안

제 4 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회의=8월12일 三井호텔.

주제발표 「과학언론매체의 육성방안」(金學銖·서강대 신문방송학과)(자료 B5 41면)

金교수는 과학자가 생산한 과학정보 중 실제로 대중에게 이해되는 부분은 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과학언론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정보전달의 장애가 초래하는 현상인데 전문적 지식의 보급문제, 保安과 출판여건 등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과학언론의 활성화는 단순히 市場기능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 공공적인 육성책을 필요로 함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과학관련 잡지·도서의 경우, 출판·판매 및 原稿확보면에서 적극 지원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국제저작권법(UCC) 발효를 앞두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국내외 원고확보難이 예상됨에 비추어 관계기관이 원고료 및 저작권료의 일부를 지원해줄 필요가 시급하다는 것.

새로운 언론법체제의 전망

제 5 차 韓美커뮤니케이션 학술발표회=8월6~7일 남한강 수련원.

① 정보화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김영석) ②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교육(김진권) ③ 뉴미디어시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자유와 통제의 유형(김정탁) ④ 지방과 도시의 정보불균형 연구(김승현) ⑤ 새로운 언론법체제의 방향(맹원순). (자료 B5 70면)

彭元順교수(한양대)는 언론기본법 폐지와 더불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및 신문·통신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법률 제정움직임에 대해 「言基法 이전으로의 환원에는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우선 방송법의 경우, 그 제정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방송사가 운영이나 편성면에서 각급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신문·통신의 시설기준과 등록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이는 「하나의 規制法을 없앤 대신 다른 새로운 규제법을 만드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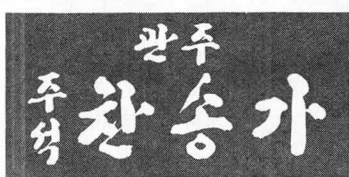
일 뿐이라고.

彭교수는 「왜 신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윤전기와 부대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인쇄시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많은 신문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혼란'이라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그 '혼란'의 시기를 우리 신문의 참된 발전을 위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한국사교실」

역사문제연구소(소장 鄭奭鍾)는 9월부터 「한국사교실」을 개설한다. 역사의 대중화작업이라는 취지에서 그 첫번째 기획으로 「인물로 본 근·현대사」를 마련했다. 흥경래에서 여운형에 이르는 역사적 인물들을 8회에 걸쳐 다룰 예정. 문의처는 738-2181, 736-2084

찬송의 메아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찬송가는 왜 어떻게 지어졌는가? 시적 영감에 대한 배경과 내력, 성경적 의미를 소상히 밝혀 은혜와 감동을 더해 줄 스테디 찬송가!

● 김성영 편저/악보 제작·양재식(한국약보사)

● 46판/총864면/값10,000원

새벗 ㉔ 성서교재간행사

서울 종로구 명륜1가 46의 1 전화: 765-0011~17